

旅軒 張顯光과 善山 地域의 退溪學脈

禹 仁 秀*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여헌의 문인들 |
| II. 여헌의 학통 문제 | V. 맺음말 |
| III. 여헌의 강학 활동 | |

I. 머리말

旅軒 張顯光(1554(명종9)~1637(인조15))은 조상들이 누대로 살아온 본관 지인 仁同에서 태어났다. 20대조인 고려 상장군 金用이래 인동에 세거하였는데, 그의 고조대에 성주로 이거하였다가 아버지대에 다시 인동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문은 그다지 현달한 편은 아니었고, 더구나 그의 고조대부터는 관직에 나아간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였다.¹⁾ 그의 어머니는 성산 이씨 참봉 彭錫의 딸이었다.²⁾

그는 8세에 아버지를 여윈 후, 9세에 善山에 있던 자형 노수함에게 수학하였고, 14세에는 문중의 장순에게 수학한 바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 스승을 찾아 전전하지 않고 독립으로 학문을 닦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6세에 寒岡 鄭述의 질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처삼촌인 한강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

* 울산과학대학 교수

- 1) 8대조 安世가 고려 말에 府尹에 이르렀고, 7대조 仲陽이 金海府使를 지냈으나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출사하지 않았으며, 6대조 脩는 강직한 성품으로 세종대 司憲府 掌書를 지낸 바 있다.
- 2) 『旅軒全書』, 「年譜」(仁同張氏南山派宗親會, 1983) 참고. 이하 별다른 전거가 제시되지 않은 약력도 이에 의거한 것임.

게 되었다.

그는 이미 23세의 나이에 才行으로 조정의 薦望에 든 바 있었고, 38세부터 典獄署 참봉을 비롯한 몇몇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선조 28년 42세에 보은현감에 임명되어 수개월 근무한 것과 선조 35년 49세에 공조 좌랑으로 『周易』 교정에 잠시 참여한 것, 그리고 50세에 의성현령으로 수개월 근무한 것이 그의 실제 관직생활의 전부였다. 더구나 광해군이 즉위하여 大北勢力이 득세한 상황에서는 일체 출사하지 않았다.

여헌이 중앙정계로부터 주목받은 것은 인조대였다. 반정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은 자당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불러 올렸고, 광해군대에 자신들과 함께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남인들을 등용하였는가 하면, 특히 유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던 산림³⁾들의 정소를 통하여 정권의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⁴⁾ 서인 집권층의 처지에서 볼 때 여헌은 그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상자였다. 그는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의 유림을 대표하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차에 걸친 정소를 거듭 사양하던 여헌은 마침내 조정에 출사함으로써 인조 정권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에 영의정이었던 남인 이원익은 “장현광이 山野 사람으로서 이제 또한 왔으니, 백성들의 向背는 진실로 알 수 없으나, 사류의 마음이 굳게 맺어진 것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⁵⁾라고 하여 그 의미를 크게 평가한 바 있다.

여헌은 사계 김장생과 함께 인조대의 대표적 산림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개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면 가끔 사은차 다녀갔을 뿐이었다. 인

3) 산림이란 말은 ‘山谷林下’에서 隱逸者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대체로 시골에서 강학하고 있는 學者들을 산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가로부터 정소를 받아 관직의 제수 등 온갖 특대를 향유한 특정 인사를 특별히 ‘山林’이라 호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一潮閣, 1999)를 참고하라.

4) 이는 광해군대의 집권 大北이 산림 鄭仁弘을 내세워 자신들이 하고자 한 바를 이루었던 사실을 모방하려 한 것이었다.(『梅泉野錄』上, p.12, 國史編纂委員會刊) 실제 공신들은 반정직후 회맹의 자리에서 두 가지 밀약을 맺었는데, 國婚을 농치지 말 것과 山林을 崇用하자는 것이 그것이었다.(『黨議通略』, 仁祖朝)

5) 『仁祖實錄』5, 2년 3월 기미.

조 원년에 지평과 司業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 장령·집의를 거쳐 정3품 당상 관인 공조·이조참의에 특배되었으며, 4년에는 형조참판을 거쳐 대사헌에 올랐다. 그 후 수차에 걸쳐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공조판서를 거쳐 13년에는 우참찬에 이르렀다. 당시 그에 대한 일반적 대우도 파격적이어서 의복이나 米饌 뿐 아니라 내의의 간병과 약물을 하사받기도 하였으며, 상경시와 하향시에는 역마를 이용하는 배려를 받기도 하였다.

그의 사회적 위상은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잘 드러났다. 당시 조정에서는 장현광·정경세를 慶尙道號召使, 김장생을 兩湖號召使에 각각 임명하여,⁶⁾ 그들로 하여금 의병을 조직·통솔하고 軍糧·軍器 등을 수집하는 책임자로 삼았다. 이는 급박한 당시 상황에서 나라의 세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三南 지방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그들의 힘을 빌어 난국을 타개하려는 계책이었던 것이다. 정묘호란이 단기간에 그치고 강화가 성립됨으로서 그들의 좀 더 구체화된 활동상은 볼 수 없지만, 여헌이 구심점이 되어 영남의 의병을 규합하고 軍糧·軍器를 수합하는 체계가 단시일에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영남지역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⁷⁾

그는 성품이 寬厚하고 도량이 넓고 德氣가 맑았다고 한다.⁸⁾ 그리하여 인조는 옛 사람의 풍도가 있다고 하였으며,⁹⁾ 우복 정경세는 옛 대신의 풍도가 있다고 하였다.¹⁰⁾ 그는 사람에게 대하여 속마음으로는 진실로 허여함이 적었으나 겉으로는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사람을 취할 적에 먼저 그 사람의 크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하찮은 병통과 작은 실수는 묻지

6) 『仁祖實錄』15, 5년 정월 정해.

7) 당시 장현광이 구성한 幕府의 구체적인 진용이나 활동상에 대해서는 문헌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문인들의 이력 속에서 산견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호소사 장현광 막부에 포진된 그의 제자들과 그들의 직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朴敏이 慶尙右道義兵大將, 李民宓이 慶尙左道義兵大將, 金寧·李民宓이 從事官, 申適道·趙遵道·蔣文益·김수가 義兵將, 그 외 裴尙龍이 격문을 초하고 軍政을 참결하였고, 李之華가 餉軍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8) 『仁祖實錄』2, 원년 7월 병진.

9) 『仁祖實錄』30, 12년 10월 기해, 『同書』35, 15년 9월 경진.

10)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않았기 때문에,¹¹⁾ 혹 세상 사람들로부터 主角을 드러내지 않고 두루뭉수리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¹²⁾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637년(인조 15) 영천 입암에서 세상을 떠났다.¹³⁾

요컨대 그는 전 생애를 거의 향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동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여 학문연구와 저작활동,¹⁴⁾ 그리고 문인양성에 전력을 바친 학덕을 겸비한 산림이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의 문인양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여헌이 누구의 학통을 계승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위로 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까이 한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그의 강학활동은 어떠하였나는 점이다. 문인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강학의 장소와 교수법 등을 살펴보겠다. 셋째, 그의 학맥을 이은 문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주로 그의 문인록이 이용되었다. 결국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바는 여헌이 누구의 학통을 계승하여, 어떠한 강학활동을 하다가 누구에게 학통을 물려주었나 하는 점인 것이다.

본고에서 선산이라 함은 옛 인동현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오늘날의 구미시 전역에 해당된다. 다만 제목에서 구미를 내세우지 않고 선산을 내세운 것은 여헌의 시대에는 선산이 더 대표성이 있는 지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헌이 태어난 곳은 정확하게는 선산이 아니고 인접한 인동이었으나 선산이 가지는 전통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산이라 하였음을 밝혀둔다.¹⁵⁾ 그리고 본고에서는 굳이 선산지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인근 지역 즉 성주, 의성,

11) 『旅軒續集』9, 敬慕錄(金然,).

12)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13) 그는 효종 5년에 議政府 左贊成에 追贈되었고, 이어 동왕 8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면서 文康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14) 그가 평생에 남긴 저술은 다음과 같다. 18세에 『宇宙要括帖』을 지은 이래, 46세에 『婚儀』, 55세부터 찬술하기 시작했던 『易學圖說』, 62세에 『冠儀』, 68세에 『經緯說』, 75세에 『晚學要會』, 78세에 『宇宙說』과 『答童問』, 79세에 『太極說』 등의 저술들을 남겼다. 그 외에도 『圖書發揮』·『易卦摠說』 등의 저술이 있었다.

15) 인동현은 1604년(선조 37)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고종 32)에는 인동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에 칠곡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8년에 인동면이 구미읍과 통합되어 구미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는 구미시가 선산군까지를 아우르는 시군통합이 있었다.

영천지역까지를 포함하여 다루었다. 왜냐하면 여헌과 그의 문인의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헌의 주된 활동 무대였고, 또 그의 문인들이 집중되어 있던 이들 지역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II. 여헌의 학통 문제

많은 연구자들이 사상사적으로 여헌에 접근하면서 퇴계와 다른 점이나 그만의 독특한 점을 내세워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독창성과 특이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문의 속성상 당연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퇴계와의 동질성을 찾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 같으며, 퇴계학 파라는 큰 범주 내에서 여헌이 차지하는 위치를 구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겠다.

이와 관련하여 여헌의 문인 중의 일부는 여헌의 이기설이 퇴계의 그것과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점은¹⁶⁾ 시사하는 점이 많다. 그리고 여헌의 독특함으로 많이 거론되는 象數學에 대해서도 여헌 자신이 “나는 젊었을 때에 자못 상수학에 뜻을 두어 헛되이 마음과 힘을 허비하였다. 근래에 다시 생각해보니 유익함이 없어서 돌아올 줄 몰랐다는 후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 四書와 정자·주자의 책을 취하여 읽어보니 친절함을 느껴 정신이 절로 배가하였다.”¹⁷⁾ 라고 토로한 사실로 미루어 여헌의 전체 사상에서 상수학이 가지는 의미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의 학통과 관련하여 그의 문인들은 한결같이 여헌이 퇴계의 학맥을 이어 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문인 韓德及은 여헌이 회재와 퇴계의 학맥을 이었다고 하였고,¹⁸⁾ 문인 洪昕은 여헌이 퇴계의 바른 맥을 이었다고 강조

16) 『旅軒續集』9, 聞見錄(申坡).

17) 『旅軒續集』10, 景遠錄(이주).

18) 『旅軒續集』10, 祭文(門人 韓德及).

한 바 있다.¹⁹⁾ 여헌 자신도 퇴계를 계승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몽주를 모신 영천의 臨臯書院의 興文堂 上樑文 말미에서 “포은선생이 우리를 열어 도와 주실 것이니, 퇴계선생이 어찌 우리들을 속이시겠는가”라고 하여 포은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학맥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²⁰⁾

여헌은 평소 퇴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퇴계를 회재와 비교하여서는 “회재는 학문이 평이하고 성실하여 大義를 通透하였으며, 퇴계는 학문이 精하고 순수하여 門路가 바르고 커서 배우는 자가 의거할 바가 있어 배우기가 쉽다.”²¹⁾라고 평한 바 있다. 그리고 퇴계를 남명과 비교하여서는 남명은 ‘高風’으로, 퇴계는 ‘正脈’으로 평가함으로써 퇴계를 더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²²⁾ 이로 말미암아 남명의 문도 중에 섭섭함을 표하는 이가 있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여헌이 퇴계의 학맥을 계승하였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다만 여헌은 퇴계로부터 직접 학문을 전수받지는 못하였다. 그는 퇴계의 제자들과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퇴계를 계승한 다른 문파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의 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 퇴계 학통을 계승하여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월천 조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 등 4대문파였다. 그 중 여헌은 한강과 함께 경상도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특히 인동·선산을 비롯하여 성주, 의성, 영천 지역에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4대문파 중에서 서애 계열과의 관계가 비교적 돈독하였던 듯하다. 서애의 형 겸암 류운룡은 일찍이 인동현의 수령으로 재임시 야은 길재를 모시는 오산서원을 건립할 때 모든 일을 여헌과 상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여헌만을 홀로 학자로 예우한 바 있었다.²³⁾ 그리고 서애 류성룡은 경연석상에서 여러 번 여헌을 천거한 바 있었으며, 아들 류진을 여헌에게 보내 수학케 할 정도로 존중하였다. 서

19) 『旅軒續集』10, 祭文(門人 洪昕).

20) 『旅軒集』10, 臨臯興文堂 上樑文.

21) 『旅軒續集』9, 記聞錄(張慶遇).

22)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23) 『旅軒續集』10, 趨庭錄(張應一).

애의 수제자 우복 정경세도 조정에서 여헌을 극구 칭찬한 바 있다. 그리고 한강과는 처삼촌과 질서의 관계로 밀착되어 있었으니, 그 돈독한 관계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퇴계의 4대문파 중 특히 서애와 한강 쪽과 밀접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천이나 학봉 쪽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여헌이 영남호소사로 활동할 때 안동지역 유림의 일부가 그 지역 의병장 차임과 관련하여 여헌에 대해 못마땅함을 지적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안·안동지역 퇴계학파의 시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해준다.²⁴⁾

여헌의 학통을 다루는 자리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소위 '한려시비'라 하여 널리 알려진 여헌과 한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여헌은 한강의 질서로서 11세 연하였다. 그런데 여헌을 한강의 문인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두 집안 후손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고, 여기에 양쪽을 지지하는 유림이 가세하여 시비가 확대된 것이었다. 두 분을 두고 일어난 시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그 해묵은 논쟁을 재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양쪽의 논리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는 데 그치도록 하겠다.²⁵⁾

첫째, 여헌이 한강의 만시와 제문을 쓰면서 문인이라 하지 않고 姪壻라고 자칭한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다. 여헌은 한강의 질서였지만 친사위와 진배가 없었고, 이 점은 여헌도 인정한 바 있다. 문인으로 보는 쪽은 여헌이 한강을 이미 장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곧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기에 사제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문인으로 보지 않는 쪽에서는 문인이라 하지 않고 질서라고 적시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4) 『溪巖日錄』 인조 5년 1월 28일 ~ 2월 18일.

李樹健, 「旅軒 張顯光의 政治社會思想」, 『嶠南史學』6, 1994, p.74.

25) 이하 양쪽 논리의 정리는 1978년 영인된 『寒岡全書』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檜淵及門諸賢錄』과 이에 근거하여 한려시비의 전말을 정리한 權延雄 교수의 논고 「『檜淵及門諸賢錄』小考」(『한국의 철학』13, 1985)를 참고하여 필자가 가감한 것이다.

둘째, 여헌이 한강의 문하에 출입한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다. 문인으로 보는 쪽에서는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문하에 출입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문인 판별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문인으로 보지 않는 쪽에서는 이미 장성한 뒤에 종유하였을 뿐, 직접 책을 펴고 장기간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한강의 죽음에 임해 여헌이 입은 상복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문인으로 보는 측에서는 처삼촌에 대해 상복을 입는 법이 없음을 감안할 때 여헌이 상복을 입은 이상 그것은 스승에 대한 상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대측에서는 여헌이 한강의 문인들과는 다른 상복을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넷째, 한강을 위해 쓴 만시와 행장 등에서 여헌은 한강이 공맹의 도통을 퇴계를 통해 계승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문인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사실은 결국 여헌이 한강의 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여헌의 도통은 퇴계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섯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는 여헌과 한강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인조실록의 사신의 언급으로 “여헌은 한강 정구에게서 수학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기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송준길이 효종에게 진언하는 가운데 “정구는 곧 장현광의 스승인데, 한강이 그의 호입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문인으로 보는 쪽에서는 물론 이를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문인 李道長도 여헌이 퇴계와 한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 바 있으며,²⁶⁾ 후일 정조도 여헌에게 내리는 제문에서 “연원이 유래가 있으니 도산의 퇴계였네. 이에 한강에 이르러 도가 합하고 뜻이 같았도다.”²⁷⁾라고 하여 여헌이 퇴계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계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여헌의 문인 金慶長은 회고하기를 “선생은 德氣가 천연적

26) 『洛村集』2, 祭旅軒張先生文.

27) 『旅軒續集』10, 正宗朝賜祭文.

으로 이루어져서 일찍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계통이 없었으나 사문의 의발을 자연 사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세대의 유현들이 추앙하여 인정하고 공경하여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²⁸⁾고 하여 여현이 특정한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결국 논의의 초점은 문인에 대한 개념 정의로 모아진다. 즉 어느 범주까지를 문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문제인 것이다. 넓은 의미의 문인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현을 한강의 문인으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은가 한다.

후대의 이 논쟁과는 별도로 여기서는 당대의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 돈독한 사이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짓기로 하겠다.

먼저 한강은 젊은 시절의 여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재질을 아껴서 성주목사 許潛에게 “장현광이 학문을 구하고 도에 뜻을 두며 덕성이 성숙되고 있으니, 다음 날에 우리들의 師表가 될 것이라”고 하며 기대하였다.²⁹⁾ 1607년 봄에 뱃놀이를 하는 자리에서 망우당 곽재우가 웃으면서 한강에게 말하기를 “나의 소견에는 여현이 한강보다 낫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한강이 답하기를 “영공의 소견이 옳습니다. 옳습니다.”하였다 하니, 주변의 선배들이 여현에게 건 기대와 여현에 대한 한강의 인식하지 않은 넉넉함을 알 수 있다.³⁰⁾ 또한 한강은 평상시 질서인 여현을 호칭할 때, 이름이나 자를 쓰지 않고 반드시 여현이라고 호를 부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³¹⁾

여현도 자신이 쓴 한강의 제문에서 생전에 한강이 자신을 친자식과 조카처럼 대해 주었음과 직접 경전을 펴고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적서주고 보태준 은혜가 매우 컸음을 슬회한 바 있다.³²⁾

28)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29) 『旅軒全書』, 「年譜」 27세조.

30)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31) 『旅軒續集』9, 敬慕錄(金佺).

32) 『旅軒集』11, 祭寒岡鄭先生文.

Ⅲ. 여헌의 강학 활동

여헌이 중앙정계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된 바탕은 많은 문도들을 길러낸 그의 강학 활동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는 거의 평생을 향촌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 생애에 걸쳐 강학 활동을 하였다. 심지어 수령으로 짧은 관직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서 강학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더구나 그는 학문적으로 완숙기라 할 55세~69세까지의 시기를 광해군대에 보냄으로써 향촌에 칩거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강학활동 뿐이었다. 그의 저술이 이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학문의 완숙기에 이르러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문인들을 만나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 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근처에 사는 문인들이 여헌의 집이나 강학소에서 배운 경우이다. 근처에 사는 장씨 문중 내의 자제들이나 인근에 사는 문인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중에는 인동 수령의 자제도 있었는데, 呂爾載의 경우가 그 예이다.³³⁾

둘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 장기간 머물면서 배운 경우이다. 간혹 집을 근처에 짓고 머물면서 배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柳軫의 경우 아버지 류성룡의 명으로 인동에 와서 머물면서 『논어』를 배운 바 있다.³⁴⁾

셋째, 여헌이 본거지인 인동을 떠나 근처의 다른 특정 지역에 장기간 머물 때 찾아와 배운 경우이다. 申達道·悅道 형제가 선산의 월파촌에 머무는 여헌을 찾아가서 10여일을 머물며, 理氣와 禮에 대해 배운 사실이³⁵⁾ 여기에 해당되는 예이다. 영천의 입암에 머물 때도 그 근처의 많은 사류들이 모여든 바 있다.

넷째, 수령 등 관직에 재임할 당시 가르침을 받아 사제의 인연을 맺은 경우이다. 신열도의 경우 여헌이 의성현령으로 재임시에 향교에서 수업을 받음으로 인연을 맺었으며,³⁶⁾ 李民歲도 역시 여헌이 의성현령으로 재직시 빙계서원에서 주

33) 『旅軒續集』10, 門人 呂爾載 祭文.

34)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35) 『旅軒續集』9, 拜門錄(申悅道).

36) 위와 같음.

역을 배운 바 있다.³⁷⁾

이러한 강학 형태의 구분은 비단 여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한번 사제의 인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여헌이 주로 강학한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의 주된 강학의 장소는 인동의 慕遠堂과 不知巖精舍, 선산의 遠懷堂, 영천 입암의 萬活堂이었다.

먼저 인동의 慕遠堂은 선조 39년 그의 나이 53세 때 남산의 옛 집터에 문인 張慶遇가 문중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새로 지은 것으로 방과 대청이 각각 두 칸의 규모였다.³⁸⁾ 이 역사에는 인동현감 류운룡이 기와를 보내주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³⁹⁾ 不知巖精舍는 낙동강변에 세운 강당으로, 광해군 2년 문인 장경우가 鄉士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었다.⁴⁰⁾ 여헌은 이 곳이 집과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였으며, 때때로 제자 6·7명과 강안에 올라가 한가롭게 바람쐬고, 시를 읊는 흥취를 즐겼다.⁴¹⁾

遠懷堂은 善山의 月波村에 세운 정자인데, 선조 38년 그의 나이 52세때 그의 생질이자 문인인 盧景任이 주동이 되어 지어 준 것이었다.⁴²⁾ 그리고 萬活堂은 永川의 立巖⁴³⁾에 세운 정자로, 선조 39년 문인 鄭四象·四震 형제가 지어준 것이었다.⁴⁴⁾ 특히 여헌은 입암의 산수와 이 곳에 거처하는 벗들을 사랑하여 즐겨 이 곳을 찾았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장소로 택한 곳도 이 곳이었다.

37) 『敬亭集』14, 「年譜」, 34세조.

38) 『旅軒全書』, 「年譜」, 53세조.

39) 『旅軒集』9, 慕遠堂記.

40) 『旅軒全書』, 「年譜」, 57세조. 여헌의 사후 이 곳은 효종 5년에 그를 주향하는 不知巖書院으로 되었다가 숙종 2년에 東洛書院으로 사액되었다.

41) 『旅軒續集』10, 趨庭錄(張應一).

42) 『旅軒全書』, 「年譜」, 52세조.

43) 이 때 입암은 월경지 형태로 영천에 속해 있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포항시 죽장면에 속해있다.

44) 『旅軒全書』, 「年譜」, 53세조.

그는 이상의 강학소를 주로 오고 가면서 학문 연구와 강론에 힘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건물들은 그의 나이 50대에 문인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인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강학당이 세워지는 것은 그 당시 내세울만한 아름다운 풍습이었던 듯하다. 한강 정구의 경우 평소 산수를 좋아하여 뜻이 맞는 곳을 만나면 서재를 지어 머물고 쉬는 장소로 삼은 것이 서너 곳이 넘었는데, 이 역시 모두 그의 문도들이 마련한 것이었다고 한다.⁴⁵⁾

그 외 자신의 정자가 아닌 곳에서도 강학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중 청송에 피난해 있을 시, 그 곳의 四勿寮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주역』을 강한 바 있는 것은⁴⁶⁾ 다른 사람의 강학소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겠다. 광해군 13년에 의성의 빙계서원에서 이민성 등 그 지역 사류들에게 강의를 베푼 것이나,⁴⁷⁾ 1620년 인동의 吳山書院에서 몇 달 동안 『대학』을 가르친 것은⁴⁸⁾ 인근의 서원을 이용한 예가 되겠다.

혹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잠시 머무는 곳에서도 인근 지역에 사는 문인들을 만나는 기회로 이용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강학으로 연결되었다. 영천 입암으로 가는 노정에 통과하는 의성지역의 구지나 빙계가 그러한 예였다. 1629년 7월 입암에서 인동으로 돌아가는 중 의성 빙계 부근을 통과할 때, 근처에 사는 신열도가 마중 나가 맞이한 바 있다.⁴⁹⁾ 그리고 1637년 2월 여현이 입암으로 가는 도중 구지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역시 신열도가 여기로 와서 모시고 입암까지 수행한 바 있다.⁵⁰⁾

여현이 강학처로 삼았던 곳의 일부는 후일 문인들에 의해 서원으로 발전되면서 향사되었고, 그 외 강학의 인연이 있었던 곳이나 지역의 서원에도 배향되었다. 인조년간에 인동의 吳山書院에 배향된 것을 필두로 하여, 선산의 金烏書院,

45) 『旅軒集』13, 寒岡鄭先生行狀.

46) 『旅軒續集』9, 言行日錄略(趙遵道).

47) 『敬亭集』14, 「年譜」, 52세조.

48)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49) 『旅軒續集』9, 拜門錄(申悅道).

50) 위와 같음.

영천의 臨臯書院, 성주의 川谷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효종년간에는 인동의 不知巖書院, 영천의 立巖書院에 主享되었고, 나아가 의성의 氷溪書院, 청송의 松鶴書院 등에도 배향되었다. 숙종 2년 不知巖書院은 東洛書院으로 사액되었다.

그러면 여헌이 평소 문인들을 가르치던 교수법은 어떠하였는가. 이 문제는 주로 제자들이 남긴 회고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헌의 경우 17명의 제자들이 就正錄, 拜門錄, 聞見錄, 記聞錄, 敬慕錄, 言行日錄, 景遠錄, 趨庭錄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회고록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된 여헌의 교수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뜻을 크고 견고하게 세워라.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먼저 뜻을 크게 확립하여야지 만이 외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또 부정한 학설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정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초학자의 경우 공부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결국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뜻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가장 경계하였다.⁵²⁾

둘째,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기본에 충실하라. 애당초 몸을 닦는 큰 방법과 덕에 들어가는 규모는 四書와 『소학』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들에 대해 먼저 충실히 공부하라고 하였다.⁵³⁾ 자신의 수준과 등급을 뛰어넘어 특별하고 기이한 것을 선호하는 자세를 경계한 것이다. 여헌은 『심경』의 경우, 결코 蒙學의 선비가 읽기에 쉽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원한 것을 좋아하여 『심경』이나 『근사록』이 아니면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오직 남의 이목에 별 다르게 보이려고만 애쓰는 세태를 개탄하였다.⁵⁴⁾

이러한 여헌의 강조는 다른 제자들의 회고록에도 많이 보인다. 여헌이 문하의

51)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52) 『旅軒續集』9, 記聞錄(張慶遇).

53)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54) 그렇다고 하여 여헌이 『심경』과 『근사록』을 소홀히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책들을 학문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指南이라고 여겨 배우는 자는 익숙히 읽기를 사서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旅軒續集』10, 景遠錄(이주).

여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군들은 강학할 적에 되도록 높고 먼 것을 탐구하려 하니, 이는 절대로 문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소견이 있더라도 끝내 실제로 얻는 것이 아니니, 등급을 건너뛰어서는 안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⁵⁵⁾ 학문을 하는 자의 수준에 맞추어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쌓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 문인 장경우가 태극도설을 읽을 것을 청하자, 여헌은 그것을 근세에 배우는 자들의 큰 병통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소학』과 사서와 정자·주자 등이 지은 책을 먼저 읽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학』은 사람을 만드는 틀이요, 『대학』은 덕에 들어가는 문과 길이니, 익숙히 읽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하였다. 이어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워야 하니,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는 것이 끝나면 자연 위로 천리를 통달하게 된다고 하면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계하였다.⁵⁶⁾

『춘추』를 배울 것을 청하는 손자 장학에게 여헌은 “『춘추』는 천하를 다스리는 大經大法이니,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어 진실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하는 데에 간절하지 않고, 또 성인이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은미한 권도를 쉽게 엿보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며, 그에게 『심경』을 가르친 것도 같은 예이다.⁵⁷⁾

셋째, 知와 行을 일치시켜라. 실천이 중요하다. 여헌은 평소 『대학』을 가르치다가 平天下章에 이르면 학문하는 법은 知와 行 두 글자뿐이라고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였다고 한다.⁵⁸⁾ 그리하여 유가의 책을 읽을 적에는 단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자료로만 삼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⁵⁹⁾ 여헌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제군들은 학문하는 방법을 아는가? 학문은 많이 듣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나 한갓 듣기만 하는 것은

55) 『旅軒續集』9, 記聞錄(張乃範).

56) 『旅軒續集』9, 記聞錄(張慶遇).

57) 『旅軒續集』10, 景遠錄(장학).

58) 『旅軒續集』9, 記聞錄(張慶遇),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59) 『旅軒續集』9, 記聞錄(朴吉應).

실천하는 것만 못하며, 배움은 실천을 귀중하게 여기나 그 실체는 반드시 궁리에서 말미암는다.”⁶⁰⁾라고 하여 지와 행의 일치를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로 강조하였다.

조임도가 일찍이 여쭙기를 “선생께서 도의 경지에 들어가신 차례와 학문하신 요점을 들려주시기 원하옵니다”하니, 여헌이 대답하기를, “학문한다 학문한다 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을 말하겠는가. 세상의 유자들은 왕왕 지엽만을 일삼고 근본을 힘쓰지 아니하여, 혹은 문자에만 힘을 쓰고 혹은 언어에만 매달려서 지식은 혹 여유있게 있으나 행실이 도리어 미치지 못하며, 강구하는 것은 자세히 하나 실천하는 것은 소략하다. 그리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서로 돌아보지 못하여, 시작과 끝이 서로 어긋나고 안과 밖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필경 그 사람과 학문이 전혀 서로 비슷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⁶¹⁾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 배우는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성실이다. 여헌은 초학자들에게 지와 행을 강조한 데 이어 다음으로는 誠과 敬을 존양하는 공부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⁶²⁾ 여헌은 『大學』을 가르치다가 誠意章에 이르면 늘 감탄하며 말하기를 “지극하다. 誠의 뜻이여.”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곤 하였다.⁶³⁾ 재주만 믿고 착실히 공부하지 않는 불성실한 공부 태도를 경계한 것이다.⁶⁴⁾ 또 학문을 배우는 자는 ‘誠篤’ 두 글자를 마땅히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⁶⁵⁾

『중용』을 가르칠 때 ‘不誠無物’ 즉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구절에 이르면, 여헌은 세 번 반복하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성실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도 오히려 물건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하물며 배우는 자에

60)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61)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62) 『旅軒續集』10, 景遠錄(장학).
 63) 위와 같음.
 64) 『旅軒續集』10, 趨庭錄(子應一).
 65)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있어서라.”하면서 성실함을 강조하였다.⁶⁶⁾ 그리하여 여헌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을 묻는 제자 최린에게 말하기를 “아래로 사람의 일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위로 천리를 통달함에 이르기까지 모두 誠이란 한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성실하게 한다면 어찌 힘이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천리 끝까지 바라보고자 다시 한 층을 올라가노라’란 말이 도를 아는 말인 듯하니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였다.⁶⁷⁾

다섯째, 경서는 작은 세주까지 정밀하게 숙독하여 자세히 이해하라. 여헌은 평소 『논어』를 가르침에 있어 그 集註까지 아울러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를 강조하였다.⁶⁸⁾ 문인 朴吉應이 여헌 앞에서 논어를 읽는데, 여헌이 小註를 읽게 하므로 길웅이 대답하기를 “大註도 오히려 많다고 싫어하는데 소주를 어느 겨를에 읽겠습니까”하니, 여헌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주를 이미 책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옛사람들이 후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자 한 것이다.”하면서 정밀하게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다.⁶⁹⁾ 책을 읽는 것이 단순히 글줄을 찾고 글자를 세는 데 그칠 뿐이고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비록 만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전혀 유익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것을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라는 말로 비유하여 제자들을 경계하였다.⁷⁰⁾

여섯째,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시킨다. 여헌은 평소 강의를 함에 있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시키는 교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는 상대방의 학식과 才器에 따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세에 맞게 약을 쓰듯이 가르쳐주었던 것이다.⁷¹⁾ 더러는 적절한 속담을 곁들여서 자세하게 타이르고 풀어주었기 때문에 힘들여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의심이 풀리면서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⁷²⁾ 또한 강의 중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반복하여

66) 『旅軒續集』9, 記聞錄(張慶遇), 『旅軒續集』10, 景遠錄(權對).

67) 『旅軒續集』9, 景遠錄(최린).

68) 『旅軒續集』9, 就正錄(趙任道).

69) 『旅軒續集』9, 記聞錄(朴吉應).

70) 『旅軒續集』10, 趨庭錄(子應一).

71) 『旅軒續集』10, 景遠錄(權對).

72) 위와 같음.

가르쳐 주었으며,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대답해주었다.⁷³⁾ 여헌이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하게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만년에 특히 『주역』을 즐겨 읽었는데, 이를 제자들에게 해설하여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치로부터 미루어 가되, 數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 詞와 한 詞辭를 두루 꿰뚫고 모두 통달하여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쉽게 설명하였다고 한다.⁷⁴⁾

일곱째, 칭찬을 많이 하라. 여헌은 평소 사람 중에 선하지 못한 행실이 있음을 보면 곧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으나, 사람 중에 한 가지라도 선행이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번번이 말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제자들을 선행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 사람을 취할 때에도 하찮은 병통과 작은 실수는 제쳐두고 항상 그 사람의 크고 중요한 부분을 살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권장하였던 것이다.⁷⁶⁾

위와 같은 여헌의 강학시 모습을 통해 그의 교수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의 교수법이 당시의 다른 학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IV. 여헌의 문인들

여헌은 퇴계와 한강으로부터 물려받은 학통을 그의 문인들에게 전수해주었다. 따라서 그의 문인들은 그를 통해 퇴계학맥을 계승한 이들인 셈이다. 여기서는 여헌 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괄한 다음, 특히 여헌의 문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선산·인동지역을 비롯하여 인근의 성주, 영천, 의성지역의 구체적인 문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73) 『旅軒續集』9, 拜門錄(申悅道).

74) 『旅軒續集』9, 景遠錄(金慶長).

75) 위와 같음.

76) 『旅軒續集』9, 敬慕錄(金然).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하를 거쳐갔다. 높은 학문과 덕망으로 인해 여헌에게는 많은 문도들이 모여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가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배출한 제자들을 門人錄을 통해 보면 약 170여명 정도이다.⁷⁷⁾ 그 중 문과 급제자가 29명에 이르렀고,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올랐던 자는 14명이었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인들의 지역적 분포 상황을 보면,⁷⁸⁾ 성주가 가장 많아 17명이고, 다음으로 인동 13명, 의성 12명, 영천 11명, 선산 10명, 경주 8명, 칠곡·함양 각 6명, 대구·함안 각 4명, 안동·진주·청송 각 3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 외에도 하양·밀양·합천·산청 등지에 각 2명, 현풍·영해·신녕·예안·상주·창녕·청도·의흥·창원·경산 등지에 각 1명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그의 문인들은 그가 은거해 있던 인동과 그 인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도 경상도 일대에 거의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먼저 부자 또는 형제가 모두 출입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부자간에 모두 급문한 경우로는 장내범 - 경우, 손우남 - 해, 권봉 - 진민, 이민환 - 정상·정기, 김수 - 하량 등의 예가 있다. 형제가 같이 급문한 경우도 많아서 정사상 - 사진, 권집 - 도, 이민성 - 민환, 신적도 - 달도 - 열도, 이도창 - 도장 형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첩된 인연으로 인해 사제 관계가 더욱 돈독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한강의 문하에 함께 출입한 문인들이 많다

77) 『旅軒先生及門錄』(嶺南大學校 도서관 소장본) 참조.

78) 문인들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은 『旅軒先生及門錄』의 각 문인에 대한 서술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문인록이 간행된 것이 1919년이기 때문에 300여년 정도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 후손들의 거주지가 곧 바로 장현광 문인들의 생존시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이 당시 사회가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세 파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는 점이다. 장내범·정사상·김녕·이언영·노경임·권집·류시번·배상룡·정사물·권도·김사충·조준도·김효가·정극후·정수민·송시영·서사선·김광계·김광악·박진경·류진·최급·김수·배상호·이도창·장문익·최린·장응일·이주·이도장 등 30명 이상이다. 인접한 지역에 두 대학자가 강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문하에 동시에 드나든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배상룡과 같이 비록 직접 경전을 잡고 직접 여헌에게서 배우지는 못했으나, 평상시 친근하게 대하고 계발해주는 은혜를 입어 문인으로 자처하기도 한 데서⁷⁹⁾ 알 수 있듯이 한강의 사후 상당수는 여헌으로 옮겨가 사제의 의리를 이어갔기 때문이었다.

여헌은 거주지였던 인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가까운 선산, 성주, 의성, 영천 등지를 주로 많이 왕래하였다. 따라서 문인들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경상도의 중부지역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그는 성주의 한강 정구와 더불어 경상도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퇴계의 학맥을 확대시킨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학봉 김성일이 안동의 동부 지역 일대에 영향력을 가졌고, 서애 류성룡이 안동의 서부 지역 일대와 상주지역에, 월천 조목이 안동의 북부지역에 영향을 끼친 것과 대비될 수 있겠다.⁸⁰⁾

사후 그의 학맥의 한 갈래는 인동의 장씨 문중을 중심으로 가학으로 승계되어 갔고, 또 한 갈래는 미수 허목을 통하여 근기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그의 생전의 번성함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본거지인 경상도 지역에서 문세가 현저하게 뺄어나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⁸¹⁾

79) 『旅軒續集』10, 門人 裴尙龍 祭文.

80) 李樹健, 「旅軒 張顯光의 政治社會思想」, 『嶠南史學』6, 1994, p.76.

81) 그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지역의 많은 사류들이 숙종대 이후에는 학봉의 적자인 갈암 이현일의 문하에 출입하게 되었다. 예컨대 영천지역의 鄭好仁의 후손들 중 鄭碩祐·碩達·萬陽·葵陽·來陽·東陽·重祿·重器, 의성지역의 이민성·민환 형제의 후손 중에 李重熙·秀馨·秀埴·秀時·秀塗 등과 신적도·달도 형제의 후손 중 申德涵·濂·正模 등이 갈암의 문하에 출입한 이들로 나타난다.(『葛巖全書』, 附錄, 「錦陽及門錄」 참고) 아울러 여헌의 문인이었던 정극후의 행장과 신달도의 묘갈명을 그 후손들의 부탁으로 갈암이 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 사류들의 갈암과의 관계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다. 먼저 다른 문파나 문중의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갈등과 견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영남 지역의 사류들은 인조대 이후 거의 중앙정계에 출사하지 못하고 향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파와 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다른 곳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더욱 증폭되어 간 감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문인들 중 그를 계승할 만한 인재가 드문 상황에서 출중했던 이들이 여현에 앞서 사망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특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기대하였던 鄭四震이 1616년에, 盧景任이 1620년에, 李民歲이 1629년에, 申達道가 1631년에, 柳珍이 1635년에 각각 여현에 앞서 떠나갔던 것이다.

1) 선산·인동지역의 문인

먼저 가학으로 여현의 학맥을 이어간 장씨 일족을 들 수 있다. 장내범 - 장경우 - 장매·장학 등 3대가 문인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위시하여 장내도, 장내정, 장덕원 등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존재는 역시 張慶遇와 아들 張應一을 들 수 있겠다.

장경우(1581~1656)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여현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그는 여현에게 남산아래 옛 터에 모원당을 지어주었으며, 부지암정사의 건립에도 앞장섰던 핵심 문인이었다. 한강이 반대파의 모해로 관직을 삭탈당하자 경상도내 유생들을 규합하여 함께 변무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1621년에는 이이첨을 참수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 등 이 지역의 유력한 학자였다. 여현의 사후에는 『여현문집』 간행을 주선하는 등 여현의 추송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여현을 주향한 동락서원에 근대에 들어와 배향됨으로써 여현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장응일(1599~1676)은 여현의 종제 顯道의 아들로서 여현에게 입양되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雙峰集』5, 부록, 行狀. 『晚悟集』10, 부록, 墓碣銘)

1629년(인조 7) 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에 이르렀다. 1649년 장령으로 재임 시 집의 송준길과 함께 훈신 김자점의 탐욕과 방자함을 탄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성격이 청렴강직하였다.

다음으로 선산지역에는 여헌의 생질인 盧景任, 사위인 朴晉慶과 그의 아들 愧·恢·慄 형제, 그리고 金寧, 金慶長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노경임(1569~1620)은 여헌이 어려서 수학한 바 있던 자형 노수함의 아들인 관계로 자라면서 여헌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나중에 류운룡의 사위가 되었다. 1591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와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이 되어 삼남 지방을 순찰하면서 일을 잘 처리하여 신임을 받았다. 36세때는 여헌을 위하여 선산 월파촌에 원회당이라는 강학처를 짓는 데 앞장섰다. 노경임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여헌은 수령으로서 지켜할 것들을 적은 편지를 보내 격려하기도 하였다.⁸²⁾ 이에 앞서 스승인 여헌의 심부름으로 래암 정인홍을 만나보고 돌아와 대단히 간사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일이 뒷날 정인홍에게 알려져서 성주목사에서 파직되었다. 그 후 낙동강변에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다가 52세의 나이로 여헌에 앞서 사망함으로써 여헌에게 회한을 남겼다.⁸³⁾

김녕(1567~1650)은 한강의 문하에서 수업하다가 25세때 인동의 여헌을 찾아가 인연을 맺었다. 1612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이듬해 인목대비를 폐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을 돌아왔다. 인조반정 뒤에 다시 등용되어 예안현감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호소사에 임명된 여헌의 종사관이 되었으며, 병자호란 때도 의병을 일으킨 바 있다.

김경장(1597~1653)은 어려서부터 여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광해군의 난정을 꺼려서 문과 응시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24세에는 인동의 상덕사에서 여헌을 배알하고 몇 달 간 머물면서 『대학』을 배웠다. 여헌의 절친한 친구인 권극립의 사위로서 1637년 입암으로 들어간 여헌을 따라 들어가 마지막

82) 『旅軒集』4, 書, 與盧甥豐基.

83) 『旅軒集』11, 祭盧甥景任文, 又祭盧甥小祥文.

을 모셨다. 여헌의 사후 『여헌문집』편찬에 힘을 보태었다.

그 외 이 지역의 문인으로 김수-하량 부자, 김양-하정 부자, 신우덕, 박윤무, 이선술, 이철강, 신한, 김공 등이 있었다.

2) 성주지역의 문인

성주는 장현광의 고조이래 아버지대까지 살았던 곳이고, 그들의 일부 묘소가 위치한 곳이며, 그리고 처삼촌인 한강 정구의 거주지이기도 하여 자주 왕래하였던 곳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성주에는 그의 문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지역 문인의 대다수는 한강의 제자들이기도 해서 문인 수에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헌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느낌이다. 張以兪와 呂孝曾 등 성주지역의 문인들이 앞장을 서서 성주의 川谷書院에 여헌을 배향하였다.

李彥英(1568~1639)은 한강과 여헌의 양 문하를 출입하였는데, 1603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정언으로 재직시 영창대군 죽음의 억울함을 주장한 정온을 변호하다가 파직당한 후 '어머니가 없는 나라에서는 벼슬을 하고 싶지 않다'며 출사하지 않았다. 인조반정후 인조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승지에 이르렀다.

襄尙龍(1574~1655)은 어려서 한강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한강이 죽은 후 한강을 섬기던 예로 여헌을 섬겼다. 여헌의 두 번째 부인 송씨가 그에게는 종이모가 되니, 여헌은 그의 종이모부인 인연도 있었다. 비록 여헌에게서 경전을 펴고 직접 수학하지는 못했으나, 평소 온화하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계발해주는 은덕을 입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호소사에 임명된 여헌의 명으로 격문을 초하였으며, 막부에서 軍政을 참결하였다.

李之華(1588~1666)는 1613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정언으로 재직시 이이첨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조반정후 다시 등용되어 주로 외직에 기용되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호소사로 임명

된 여헌의 막부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병자호란 때도 의병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외 문인으로 배상호, 김효가, 송시영, 송시진, 최급, 최진형, 최진화, 최린, 장이유, 여효증, 여효주, 송세음, 도한국, 이주, 이룬 등 다수가 있었다.

3) 영천지역의 문인

영천은 여헌이 자주 왕래하였던 곳으로 많은 인연이 있던 곳이었다. 특히 영천 입암에 자주 갔었는데, 그가 이 곳의 산수를 사랑함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과 문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때 피난차 이 곳을 들린 이후 거의 매년 이 곳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여헌은 말년에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곳으로 이 곳을 택하였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곳이다.

이 곳에서 학문을 함께 강마한 영천의 선비들로 權克立, 孫宇男, 鄭四象·四震 형제가 있다. 권극립은 친구 사이였고, 손우남과 정사상, 정사진은 문인으로 자처하였다. 정사진 형제는 여헌을 위하여 입암에 강당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들과의 인연은 자식대에도 이어져 여헌에게서 수학한 이가 많았다. 권극립의 아들 崱, 손자 尙敏·好敏·晉敏, 사위 金慶長, 사위 鄭安蕃의 아들 好仁 등이 그들이다. 손우남의 아들 瀧와 沆도 아버지에 이어 여헌에게서 수학하였다.

여헌의 사후 강학의 장소에는 입암서원이 건립되어 여헌이 주향으로 향사되고, 그리고 위의 4인이 배향되었다. 또한 여헌이 정몽주를 모신 입고서원에 배향되는 이유도 입암에서 비롯된 영천과의 인연에서 찾을 수 있다. 입고서원은 손우남, 정사진, 그리고 정호인 등 여헌과 밀접한 연결을 가졌던 이들이 깊이 관계하던 서원이었던 것이다.⁸⁴⁾

84) 임진왜란 때 불탄 입고서원을 1602년(선조35)에 다른 장소로 이진하여 지을 때, 營造를 담당한 이들이 鄭世雅, 鄭湛, 孫宇男, 鄭四震 등이었던 데서 그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정세아는 정호인의 조부이다.

영천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鄭四象·四震 형제와 鄭四勿·克後 형제를 들 수 있다. 정사진(1567~1616)은 어려서부터 여헌과 인연을 맺었는데, 임진왜란 때 여헌이 청송·봉화 등지로 피난할 때 동행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여헌을 도왔다. 임난 후에는 입암으로 들어가 바위 바로 옆에 日躋堂을 지어 복거하면서 가끔 찾아오는 여헌을 머물게 하였다. 몇 년 뒤에는 여헌을 위하여 마주보이는 곳에 萬活堂을 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인동에 머무는 여헌에게 각종 해산물을 비롯하여 암소와 신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종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여헌을 가까이에서 극진하게 모셨으나 50세의 나이로 앞서 죽음으로써 여헌을 안타깝게 하였다.

정사물(1574~1649)도 동생 극후와 함께 일찍이 문하를 출입하였는데, 여헌이 그의 자를 亦顏으로 지어주었다. 이들이 인동의 남산으로 여헌을 찾아 공부를 배울 때, 여헌은 다른 문인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던 『우주요팔첩』과 『역학도설』을 보여줄 정도로 총애하였다. 이들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였고, 벼슬에는 큰 뜻이 없어 형제가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정호인(1597~1655)은 입암에 있는 외가인 권극립의 집에서 태어났다. 23세에 입암에 머물던 여헌을 찾아 공부하면서 정식 사제의 연을 맺었다. 문장과 재주 뛰어났고, 31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여헌이 마지막으로 입암을 찾았을 때도 함께 하였으며, 여헌이 사망하자 護喪을 맡아 일을 잘 처리하였다. 그 후 입암에 여헌의 영당 건립을 추진하여 후일 서원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닦았고, 허물어진 일제당을 중건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4) 의성지역의 문인

의성은 여헌이 수령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던 지역이다. 수령으로 재임시의 강학활동에서 처음 맺어진 사제의 인연이 지속된 곳이다. 더구나 의성은 여헌이

영천의 입암을 오갈 때 늘 통과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발길이 자주 닿던 곳이었다. 李民成·民寔 형제와 申適道·達道·悅道 형제와의 인연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 외 이 지역의 문인으로는 민환의 아들인 李廷相·廷機 형제, 申之悌의 동생 之敬과 아들 弘望 등이 있다.

이민성(1570~1629)·민환(1573~1649) 형제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經史와 諸子百家書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있어 재덕을 겸비한 인물들이었다. 28세를 전후하여 형제가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민성은 34세 때 의성현령으로 부임한 여헌을 빙계서원으로 모시고 주역을 강하였다. 폐모론이 일어나자 그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이이첨의 모함을 받아 삭직된 뒤 고향에 칩거하였다. 인조반정후 장령으로 복직하여 좌승지에 이르렀다. 이민환은 강홍립의 막하로 출전하였다가 청의 포로가 되었는데, 항복 권유를 끝까지 물리치고 17개월 동안의 포로생활을 한 바 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민성은 경상좌도의병대장으로, 민환은 종사관으로 각각 활약하였다. 2년 뒤에는 여헌이 입암에서 인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빙계서원에 들리자 이민성은 유생들을 이끌고 가서 강론을 청하였으며, 인하여 빙계서원 원규를 정하였다고 한다. 의성의 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신적도(1574~?)·달도(1576~1631)·열도(1589~1647)형제는 1603년 여헌이 의성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향교에서 수업을 받는 등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광해군 시절에는 관직에 나아가기를 단념한 신달도와 열도는 수시로 인동의 남산과 부지암정사, 또는 선산의 월파촌 등 여헌이 머무는 곳을 찾아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10여 일을 머물면서 『心經』이나 『近思錄』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이기론이나 사단칠정설, 그리고 각종 예설에 대한 강론을 하였다. 인조 초년에 형제가 나란히 문과에 급제한 후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도 여헌이 서울에 올라오면 매일 방문하여 함께 담론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관직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서울과 고향을 오가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주 여헌을 찾아 뵙고 소식을 전하는 등 빈번히 접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신적도는 호소사에 임명된 여헌에 의해 의병대장에 차임

되었으며, 신달도는 적극적으로 최화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후 신열도는 여헌의 권유로 의성의 읍지인 『聞韶志』를 편찬하였으며, 말년에 입암으로 들어가는 여헌을 의성에서부터 수행하여 수십일을 함께 지내는 등 여헌의 깊은 신망을 받았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여헌이 누구로부터 학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가르쳤으며, 누구에게 학통을 전하였는가 하는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간략히 요약하여 맺으면 다음과 같다.

여헌은 인조대의 대표적 산림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전 생애를 거의 향촌에 머물면서 학문연구와 저작활동, 그리고 특히 문인양성에 전력을 바친 학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퇴계로부터 직접 학문을 전수받지는 못하였지만 퇴계학파라는 큰 줄기 속에 위치 지울 수 있다. 그와 퇴계학파와의 관련에는 퇴계의 우수한 제자 중의 한 명인 한강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여헌이 11살 연상인 처삼촌 한강에 대하여 문인이라고 자칭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넓은 의미의 문인으로 파악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는 그의 강학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큰 학자답게 많은 강학처를 가지고 있었다. 본거지인 인동에 慕遠堂과 不知巖精舍, 인근인 선산에 遠懷堂, 그리고 영천 입암에 萬活堂 등 여러 곳에 자신의 강학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강학소는 그의 나이 50대에 문인들이 지어주었던 것이다. 그는 위 강학소를 중심으로 하고, 더러는 다른 장소에서 문인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에게 수학한 문인들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가까운 근처에서 왕래한 경우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 주변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배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든 선산이나 영천의 강학소에서

사제의 인연을 맺은 경우도 있었으며, 더러는 지방 수령으로 재직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잠시 머무는 곳에서 인연을 맺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문인들에게 평소 여헌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다. 첫째, 뜻을 크고 견고하게 세워라.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먼저 뜻을 크게 확립하여야지 만이 다른 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기본에 충실하라. 자신의 수준이나 등급을 뛰어넘어 특별하고 기이한 것을 선호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쌓아가라. 셋째, 知와 行을 일치시켜라. 유교의 경전은 단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자료로만 삼으려고 해서 안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배우는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성실이다. '誠篤' 두 글자를 마땅히 표준으로 삼아 착실히 공부해야 한다. 다섯째, 경서는 작은 세주까지 정밀하게 숙독하여 자세히 이해하라. 위의 점들을 평소 강조하면서 여헌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시키는 교수법을 견지하였고, 잘못된 점을 일일이 나무라기보다는 잘한 점을 들어 칭찬해주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그가 전해준 학통과 문인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의 학통의 한 갈래는 비록 허목을 통해 근기지역으로 넘어갔다고는 하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장경우를 통해 문중을 중심으로 한 가학으로 계승된 데 머물렀다. 이는 그의 생전의 번성함과 비교하면 대단히 위축된 모습으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그의 학맥이 뻗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그의 문인록에는 약 170여명의 문인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 문과 급제자가 29명에 이르렀고,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올랐던 자가 14명이었다. 문인 중에는 부자 또는 형제가 모두 출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강의 문하에 함께 출입한 문인들도 30여명 이상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일대에 거의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인동·선산, 성주, 의성, 영천 등 경상도의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들은 여헌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인동·선산 지

역은 그의 고향으로 주거주지였다. 장경우·장응일·노경임·박진경·김녕·김경장 등이 대표적 문인들이었다. 성주는 그의 조상의 묘가 있던 지역이자 한강 정구가 머물던 곳이었기에 자주 출입하였던 지역이었다. 대표적인 문인들로 이언영·배상룡·이지화·여효증 등을 들 수 있다. 영천의 입암은 그가 즐기던 아름다운 산수와 아끼던 사우문인들이 머물던 지역으로 그가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택했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손우남, 정사상·사진 형제, 정사물·극후 형제, 정호인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성은 영천에 오고 갈 때 늘 거쳐가던 곳으로 그가 수령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던 지역이었다. 이민성·민환 형제, 신적도·달도·열도 형제를 대표적 문인으로 들 수 있다.

여헌이 위 지역의 서원들에 주로 향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여헌은 왕성한 강학 활동으로 문인들을 양성함으로써 퇴계의 학맥을 이들 지역에 확대시킨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겠다.